

윤석열, 5·18묘지 방문... 최재형, 부인과 봉사 '색깔 행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광폭 행보'

윤 캠프 "尹 목소리 보수문제 아나 3주간 행보, 원칙 세워 일정 진행"

최 캠프, 부인관련 문제 거리낌 없어 "최 전 원장, 원래 봉사 많이 한다"

대선판에 뛰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마다 '색깔'을 갖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5·18 정신'을 강조하며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립 5·18 민주 묘지에 방문, 오월 열사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5·18 민주화운동 구속 관련자, 오월어머니회(피해자 유가족 모임) 등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좀더 우리가 승화해 보편적 가치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밑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지지율 상승 차원에서 좌고우면(앞뒤를 재고 망설이는 모습)하며 행보를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선판에 뛰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광주 5.18민주묘소를 찾아 오월 열사를 추모했다. /뉴스1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인과 함께 부산을 찾아 미화 봉사활동을 했다. /최재형 캠프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 만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 캠프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서 있어서 그렇지 윤 전 총장이 목소리를 낸 소득주도성장·탈원전·부동산 같은 문제들이 보수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난 3주 동안 전체적인 틀 속에서 평가하면 보수적인 행보만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대선 행보) 첫 주에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고 그 다

음주에 안철수·최장집·진중권·김영환 같은 분과 만난 것에 (좌고우면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원칙을 세워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형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이 5·18 민주 묘지에 방문한 날, 부산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해운대 석대사거리 인근 동천교 강가를 방문한 최 전 원장은 미화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평당원 입당 후 첫

행보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강점에 대해 부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동시에 보수세가 강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봉사활동에는 최 전 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도 동참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의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 데 반면, 최 전 원장은 해당 문제에 거리낌 없는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 캠프 관계자는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지와 통화한 캠프 관계자는 "최 전 원장 내외분이 원래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하고 교류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김 의원이 당원들과 봉사활동한다고 해서 선뜻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한편 양측 캠프로 모이는 인사의 면면도 다르다. 윤 전 총장 캠프엔 MB·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공보팀 4명만 공식 캠프 인원이었다고 강조했으나 김영환 전 의원, 채성령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캠프엔 김영우, 조해진, 김미애, 김용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나서고 있다. 후보의 생각을 전하는 공보팀도 윤 전 총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최 전 원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꾸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올 최고의 우리술 '풍정사계 춘' 대통령상

농식품부 '2021 우리술 품평회' 부문별 대상 등 15개 제품 선정

올해 최고의 우리술에 '풍정사계 춘' 등 15종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올해 최고의 우리술을 선별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술 품평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다.

올해 품평회에는 탁주(막걸리),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등 5개 부문에 총 234개 제품이 출품됐다. 출품 제품을 대상으로 국산농산물 사용비율,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국내 육성 품목 및 발효제 사용실적 등 서



2021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차지한 '풍정사계 춘' /농림축산식품부

류평가와 주류 전문가의 관능평가, 올해 첫 도입된 국민심사위원단의 구매의향 평가로 진행됐으며 부문별 대상 등 15개 제품을 선정하고 부문별 1위 제품 중 품질관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장 평가를 거쳐 영예의 대통령상을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화양의 '풍정사계 춘'은 정주지역의 쌀(품종 진수미)과 찹쌀(품종 백옥찰, 동진찰)에 자가 제조 향온곡(누룩)을 사용해 첨가물 없이 빚은 제품이다. 온도·위생관리 등 품질관리의 우수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대상은 부문별로 탁주부문에선 한강주조의 '나루생막걸리', 과실주 부문은 수도산와이너리의 '산머루크라테스 스위트', 증류주 부문은 죽향도가의 '죽향 41', 기타주류 부문은 두레양조의 '두레 앙브랜디'가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지역 농산물과 국내육성 품목과 발효제를 활용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땀범벅 의료진 모습, 안스럽고 가슴아파"

문, 삼성역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4차 대유행 상황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 방역 현장 점검과 함께 의료진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했다. 이곳은 현대백화점 확진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검사를 한 임시선별검사소 가운데 하나로, 문 대통령은 현장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수행 인원과 함께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검사소와 휴게실을 둘러보고, 폭염에 대비한 물품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역 코로나19 선별검

사소를 찾은 이유에 대해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대응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소와 휴게실을 돌아보고 관계자들과 대화도 나눴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의료진들이 땀범벅이 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아쉬운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더운 날씨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답했다.

현장 관계자 발언에 문 대통령은 "지금도 덥지만 앞으로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니, 폭염 대책을 꼼꼼히 챙겨 달라"라며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양오승 강남구보건소장 등에게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요거프레소, 예상매출액 부풀려 '과징금'

공정위, 과징금 1억3100억 부과

커피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주)요거프레소가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요거프레소의 2019년 연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656곳이고, 연간 매출액은 201억5800만원이다. 가맹점 1곳 당 연평균 매출액은 약 30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요거프레소는 2017년1월2일~2020년1월13일까지 20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요거프레소는 계약 희망자들에게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전국 단위로 각 상권별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알렸다. 이에 따라 요거프레소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은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최소 30%~ 최대 90%가 높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 재할공학연구소 재활보조기구 감속기 개발

국내 연구진들이 전동 휠체어 등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재활보조기구에 쓰이는 감속기 개발에 성공했다. 감속기 개발로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wearable) 로봇 등에 활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재할공학연구소는 일본에서 90% 이상 수입하던 하모니 감속기를 대체할 수 있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경우 기존 제품보다 작고 외부 충격에 강하며 소음도 적은 특성이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유통업계, 매장·직원시설 철저 방역을"

박진규 차관, 이마트용산점 특별점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8일 휴가·방학철을 맞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과 수도권 확산세 안정을 위해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업계 방역관리 상황을 합동점검하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이마트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2시 영업시간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재택근무 확대 등 정부 방역수칙을 이행 중이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 집단감염의 예방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장인 유통업계가 매장 방역뿐만 아니라 직원 공용공간인

휴게실, 보관창고, 구내식당, 탈의실 등과 환기시설, 화장실, 세면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업장 방역 수칙도 빈틈없이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지역간 이동량이 증가할 경우 유행 확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유통 종사자는 물론 국민 모든분들께서 휴가분산 실시, 휴가 후 출근 전 유증상 확인 등 휴가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등 방역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강화된 특별점검 및 업계 소통을 통해 현장중심 방역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